

# KTX 끊긴 광주역.. 활성화 의견수렴에 주민들 냉랭

## 광주시 활용방안 간담회서 무사안일 행정 비난

## 주변상인 생계대책·폐쇄 여부 조기 결정 의견도

“KTX가 끊긴 후 하루에 겨우 닭 한두 마리 튀겨 파는데, 튀기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미 KTX가 안들어오고 있는데, 이제야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단지요?”

광주시가 KTX광주역 미진입 이후 활성화를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 의회와 북구청, 정지권,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역 기능변화에 따른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광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를 비난했다. KTX의 광주역 미진입이 수년전부터 예고됐는데도 관련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준 광주역 주변 상인회 부회장은 “벌써 시청만 5차례 방문해 KTX미진입시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북구청 등 행정기관을 광주역 부지로 옮기는 것을 추진중이니 기다려 보라느니,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 중흥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봉호씨는 “여러분(시청 공무원 등)이 여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대책 운운하고 있는 동안에도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일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떠나 주변 상인에 대한 생계 대책부터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북구가 지역구인 시·구의원들도 수동적인 광주역의 대응 방식을 입을 모아 비판했다.

고영봉 북구의원은 “광주역이 먼저 나서 국토부와 코레일과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광주역의 KTX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KTX미진입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광주역의 답변에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은 “광주역이 이미 2004년부터 예견됐던 일을 방지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되고 어려워지니까 시민의견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주민의견 수렴해 관련 용역 맡기면 최소 1년은 걸리는 데 결국 또다시 1년간 손 놓고 있겠다는 말이다. 이 기간 동안 인근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나”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역 폐쇄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광주역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광주시민의 문제다. 광주역 앞의 도심교통 흐름을 차단할 정도로 정체현상이 심각한 만큼 (광주역으로 막힌)도로를 뚫어야 한다”면서 “광주역을 과감히 폐쇄하고 도심재생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철 북구청 도시국장도 “광주역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역 폐쇄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인 광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제기된 많은 의견들과 쏟아진 질책, 서운함까지도 잘 새겨 들겠다”면서 “광주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향후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연구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中 저장성 교류 확대

## 양지역 개최 국제행사 지원도

전남도가 자매결연 관계인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남지사는 13일 저장성의 리장(李強) 성장과 회담을 갖고 인적교류 위주에서 경제, 교육, 문화, 과학, 해양수산분야로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도와 저장성은 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저장성은 여행업계 관계자와 경제인 등 5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와 ‘국제농업박람회’에 파견하고, 전남도는 6월에 열리는 ‘중국 이우(義烏) 국제소상공박람회’에 전남업체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낙연 지사와 리장 성장은 한·중 지방정부 교류협약체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양승(楊雄) 상하이시장과 면담에서도 양국 지방정부 교류협약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이 협의체에 참여할 자치단체는 한국에서는 전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중국에서는 저장성, 상하이시, 톈진시, 산둥성, 장쑤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회담을 마치고 오전장에서 지난 2005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저장성 당 서기로 전남도를 방문했을 때 리 성장이 비서장으로서 수행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하면서 시 주석과 전남도의 인연을 강조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

## 최종 부지 12월 선정

36년간 광주에서 운영됐던 전남공무원교육원이 전남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 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1억7000만원에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용역 기관은 8월까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한 뒤 9월 중간보고회, 10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는 감사 접근성, 교육생 편의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전남도는 부지가 선정되면 50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전남공무원교육원은 1979년 9월 광주 북구 매곡동 현 부지에 건립한 뒤 도청 이전이 추진되던 2002년 남악신도시로 옮긴다는 기본 방침이 확정됐다.

하지만 남악신도시 부지 여건이 마땅하지 않아 현재까지 광주에서 그대로 운영해 왔으며 전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명분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전 추진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무원교육원은 연 15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참가자가 2만3000여 명에 달해 전남 9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담양군과 강진군, 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등이 접근성과 예산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5km 고도서 22시간 비행 전기동력무인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고층 항공센터에서 틸트로터 기술이 적용된 고속 무인기로 전환한 유무인복합기(CFT) 등 자체개발한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형 무인항공기를 선보이는 시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높은 고도에서 장기체공이 가능한 전기동력무인기 EAV-2로 지난 2013년 5km 고도에서 22시간 연속 비행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고층 항공센터에서 틸트로터 기술이 적용된 고속 무인기(TR-60), 태양광 장기체공 전기동력무인기(EAV-2), 유인기를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형 무인항공기를 선보이는 시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높은 고도에서 장기체공이 가능한 전기동력무인기 EAV-2로 지난 2013년 5km 고도에서 22시간 연속 비행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목포에 국립 ‘김산업 연구센터’ 건립 추진

##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국 김 생산량 가운데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가 국립 ‘김 산업 창조혁신 연구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의 산업 규모나 수출액 등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기관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유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산업의 지속적이

고 혁신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전문 국가연구기관인 ‘국립 김 산업 창조혁신 연구센터’ 건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립 예정 지역은 목포시 일대로 부지 면적 5만㎡, 연 건축 면적 9500㎡ 규모다.

사업비는 2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김 산업 연구센터는 종자 개발, 양식방법 개선, 가공기술 개발,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활로 개척

등의 역할까지 맡게 된다.

산업 규모가 1조2000~5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김의 경우 국립원에특목과학원인산특작부 등 연구기관이 8곳에 달하지만 1억 3000억원 규모의 김과 관련해서는 해조류 연구기관이 있을 뿐 개별 독립한 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김 산업 규모와 비슷한 인산 연구 기관은 8개나 되는데 반면 김 연구기관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김 관련 연구기관이 열악하다”며 “김 산업 전반을 컨트롤 할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고맙습니다”

## 리퍼트 미대사, 피습 당시 도와 준

## 의료진·경찰 등 관저 초청 리셉션

지난달 초 조찬 강연장에서 김기종(55)씨의 습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은 마크 리퍼트(사진) 주한 미국 대사가 당시 자신을 도운 의료진과 경찰관 등을 초청해 고마움을 표시한다.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한국 경찰과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 등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한 이들을 위해 음악회와 식사를 겸한 감사 리셉션을 열 예정이다. 행사에는 사건 당시 대사의 치료를 담당한 정남시 연세의료원장과 유대현·최운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100여명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김기종씨를 제압한 중로경찰서 직원들과 피습 직후 리퍼트 대사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 세종로파출소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퇴원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격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와 체계적인 치료를 한 훌륭한 의료진 모두에게 고맙다”며 “모든 한국인의 성원에 크게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600g 120,000원
- 한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010-2632-77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li> <li>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li> <li>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li> <li>은행원, 연구원 29-49세</li> <li>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li> <li>사업가, 자영업 29-39세</li> <li>세무사, 연구원 29-48세</li> <li>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li> <li>교사, 교수 28-49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li> <li>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li> <li>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li> <li>의사, 약사, 교사 25-39세</li> <li>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li> <li>공무원(5급-9급) 27-42세</li> <li>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li> <li>간호사, 은행원 26-47세</li> <li>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li> <li>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li> <li>미스리더, 미스전북 27-36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변호사 32-65세</li> <li>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li> <li>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li> <li>대기업 간부 36-59세</li> <li>회사원, 자영업 33-67세</li> <li>'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li> <li>VIP 희망 여성 29-53세</li> <li>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li> <li>공무원, 교사 32-58세</li> <li>간호사, 회사원 29-48세</li> <li>자영업, 교사 35-64세</li> <li>'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li> </ul>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